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6월 9일
제2004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 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2024년 주일학교 첫영성체식>

연중 제10주일 (나해)

제 1 독 서 창세 3,9-15 | 나는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라.

화 답 송 시편 130(129)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 2 독 서 2코린 4,13-5,1 |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복 음 마르 3,20-35 | 사탄은 끝장이 난다.

사탄은 끝장이 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²⁰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²¹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²²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²³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²⁴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 내지 못한다.
²⁵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²⁶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 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²⁷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²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²⁹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³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³¹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³²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³³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 하고 반문하셨다.
³⁴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³⁵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복음 묵상

율법 학자들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베엘제불이 들렸다.”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고함을 비난하시며 다음과 같이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심지어 신성을 모독하는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의 활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의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지니고 계시는 분으로서(1,10 참조)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데, 그 행위의 근본적 의미는 죄의 용서입니다. 곧 성령의 행위는 죄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죄를 용서하는 성령의 행위를 거부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자비를 청하며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용서하시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행위를 거부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의 행위는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용서와 구원을 믿지도 받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을 모독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용서를 거부하고 우리를 죄의 상태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비를 청하기만 하면, 주님께서서는 어떤 죄든 모두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정훈 바오로 신부)

예수 성심 성월

교회는 해마다 6월을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다. 의인이든 죄인이든 모든 사람을 받아 주시는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때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써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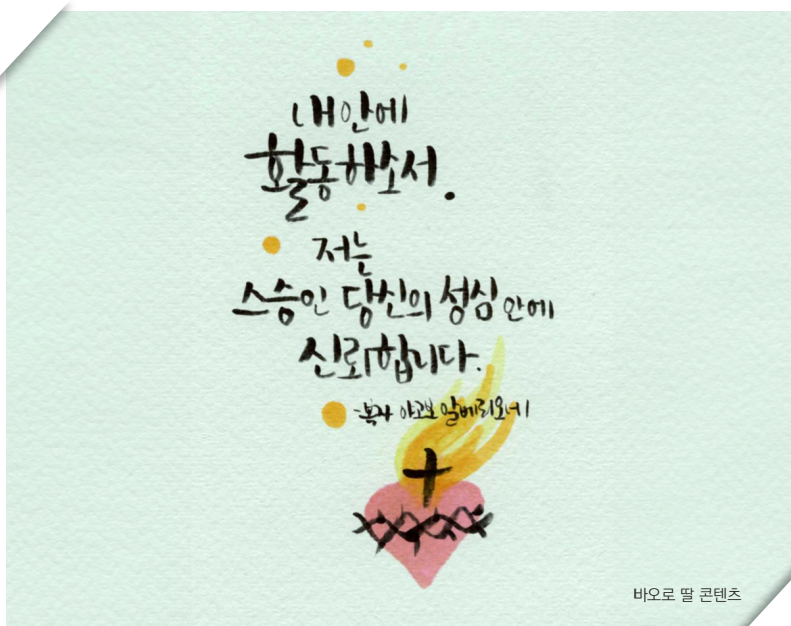


바로로 말 콘텐츠

예수 성심 공경은 중세 때부터 수도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 1856년 비오 9세 교황이 이 신심을 권장하면서 예수 성심 축일을 보편 전례력에 도입하였고, 1956년 비오 12세 교황이 예수 성심 공경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회칙 「물을 길으리라」(Haurietis Aquas)를 반포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회칙에서 비오 12세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은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하느님의 총만성의 가장 명확한 표상”(100항)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학교”(123항)라고 하였다. 예수 성심 축일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호소하신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마태 26,38).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가장 온전한 자기 계시이기에 그 마음은 절대적이고 한없는 사랑의 원천이다. 이러한 사랑은 십자가의 수난과 고통을 통하여 절정에 이른다.**

교회는 이 예수 성심 성월에 특별히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를 바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바로로 말 콘텐츠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굶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용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1 단체부 월례 모임

- 일시 : 6월 9일(일) 오전 11:30 (A-1,2)
- 단체별로 꼭 한 명씩(대리 참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6월 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3 하상 문화원 이사회의

- 일시 : 6월 9일(일) 11:30분 (하상관 #110)
- 하상 문화원은 한글학교, 성인학교, 하상 방송국을 운영합니다.

4 2024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 6월 16일(일) 오전 11:30 - 오후 4:30
- 장소 : 하상관 주차장(성당 뒷편)
-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음식은 구역별로 준비한 음식과 본당에서 제공한 바비큐 파티로 하고, 모든 분에게 무료로 음식이 제공되며, To go는 없습니다.
- 음식 준비로 인해 구역별로 인원을 파악합니다(친교실).
-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체별 주문은 없습니다.
- 16일 친교실 성모회 물품 판매는 쉽니다.

5 하상회·안나회 월례 회의

- 이번 달 하상회와 안나회 월례 회의는 장터에서 구역별로 합니다.

6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6월 16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7 성학대 피해자·생존자의 치유를 위한 기도 미사

- 일시 : 6월 17일(월) 오후 6:30 (미사 후 친교)
- 미사 : 마이클 버빗지 주교 집전
- 장소 : Our Lady of Lourdes Catholic Church (830 23rd St S, Arlington, VA 22202)
-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8 주일학교 CCD Summer Camp

- 일시 : 8월 9일(금) 오후 3시 - 8시, 8월 10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장소 : 성당
- 대상 : 현재 K(유치부)부터 7학년까지
- 등록비 : 한 명 \$50, 두 명부터 \$40
- 등록 기간 : 6월 9일(일) - 7월 28일(일) (주일 2시 미사 후, 성당 입구)
- 연락처 : 임형준 이레네오 (703) 624-8196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 2024년 성인학교 봄학기 종강식

- 일시 : 6월 14일(금) 오전 11시 (하상관 #110)
- 수강생과 강사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Guitar) 교실 발표회 : 6월 16일(일) 장터 한마당
- 문의 : 김 율리아나 교장 (703) 217-2775
- 성인학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 대부모/대자녀 프로그램(예비자와 친교모임)

- 일시 : 6월 16일(일요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친교실 A1, A2
- 문의 : 교육부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친교 모임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에게 관심을!

-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자분들을 위해
-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선포하며
- 예비자 교리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는 **주일 8시 30분에 하상관 110호**에서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추가로 받습니다.

2024-2025년 예산안

- 6월 30일부로 회계가 마감됩니다.
- 각 단체별로 결산과 예산안을 준비해 주세요.

WorkCamp Rosary Pickup

- 워크캠프 팀에서 주문받은 목주가 준비되었습니다.
- 6월 8일(토) 특전 미사 후, 6월 9일(일) 8시, 10시, 2시, 5시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나눠드립니다.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린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② 고해성사,
 -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16월 예수 성심 성월



(바오로딸 콘텐츠)

교중미사 예불봉헌

06/09 이번 주	알렉산드리아 구역
06/16 다음 주	비엔나 1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6월 2일 (성체 성월 대축일)

봉헌금	\$ 7,700.00
교무금	\$ 7,680.00
교무금(신용카드)	\$ 2,820.00
감사 헌금	\$ 520.00
2차 헌금	\$ 4,910.00
온라인 봉헌	\$ 3,105.00
합계	\$ 26,735.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6월 13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6월 14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6월 16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별기획 미션 :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4부] 파푸아 뉴기니

교황님의 6월 기도지향 | 조국을 떠나는 이주민들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